경기 고양시의 제23회 행주문화제

행주산성 충장사忠莊祠에서 고유제로 시작

▲ 행주문화제의 고유제에서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이 아헌관으로서 작헌하고 있다

▲ 행주산성 일대에서 여러 전통민속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가 매년 가을에 벌이는 행주문화제幸州文化祭가 금년에 그 23회째를 맞아 2010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행주산성 일대에서 벌어졌다.

첫날 산성의 충장공 권율權慄 도원수 동상 앞 광장에서 14시부터 15시까지 1시간 동안 '산성연희열전、고양들소리、행주농악' 등이 시연되고 14시 20분부터 50분까지는 산성 충장사忠莊祠에서 충장공께 행사를 아뢰는 고유제가 봉행된 다음 15시부터 30분 동안 동상 앞에서 문화제의 개막을 선언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한편 동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는 산성 충훈정에서 궁도대회가 열리고 산성 잔디마당에서는 11시부터 12시, 16시부터 17시까지 2회에 걸쳐 '행주마당 토막 창극 놀부야, 놀부야'가 공연되었다. 산성 주차장에서는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어린이 권율 도원수, 골든벨 울려라'가 열리고 동상 앞에서 16시부터 17시까지는 위령굿판이 벌어졌다. 대첩문에서는 11시부터 11시부터 17시까지 수문장 교대 의식이 계속되고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주차장에서는 행주 기마대의 행렬이 연출되었다. 그리고 시내의 고양시청 가까이에 있는 고양어울림극장 앞 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고양어울림누리의 어울림음악회와 불꽃공연이 이어졌다.

2일째 10월 8일에는 11시부터 동상 앞 대첩문 밖 광장에서 14시 반까지 산성연희 열전과 송포호미걸이 · 성석진 밭두레 등이 공연되고, 15시부터 16시까지는 산성연희 열전과 고양 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 소리가 공연되었다. 잔디마당에서는 전일에 이은 창극 놀부야, 놀부야가 계속 공연되고 충의정에서는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산성음악 대축제가, 시내의 어울림누리 꽃메야외극장에서는 18시부터 21시까지 꽃메 전통 공연을, 화정역 인근에서는 19시부터 21시까지 꽃우물난장과 경기케이블과 함께하는 시민음악회가 열렸다.

3일째인 10월 9일에는 각 시간대별로 산성 입구에서는 선비다례가, 산성 일대에서는 행주야 놀자 · 산성 한 바퀴 등의 공연과 체험 행사를 겸한 전통놀이가, 충의정에서는 고양들소리 · 실경 전통민속마당극 · 행주치마 매돌을 감싸다 등이 공연되고 꽃뫼야외극장에서는 청소년문화 한마당이, 화정역 인근에서는 꽃우물난장과 로데오거리극 등이 공연되었다. 그 밖에도 곳곳에서 전통머리 체험 · 다도 체험 · 가훈 만들기 · 신기전 마당 · 2010평화의 행주치마 만들기 · 타임캡슐 프리티스톤Pretty Stone · 오마주 권율도원수 · 다정한 행주 주먹밥 등의 행사가 이른바 '왁자지껄 축제'로 벌어졌다.

원래 이 행주문화제는 임진란 행주대첩 당시 전사한 병사와 억울하게 죽은 백성 및 적국 일본의 왜군 병사까지의 원혼을 진위鎭慰하고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영령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산성이 있는 덕양산德陽山의 산신을 달래 산하촌 잣골과 맨돌마을 살람들이 도당제都堂祭의 형식으로 수백년 전부터 해내려온 전통의 민속행사로서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질병 예방 및 풍년 등을 기원한 것이었다. 이러한 민속행사가 1980년대말 행주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승격되어 지역문화제로 발전하면서 주민과 시당국 및 문화원에서 협조하여 오늘과 같이 발전되었다.

▲ 대첩문 밖 광장에서 풍물패의 농악마당이 공연되고 있다

▲ 충장공 동상 앞 광장에서 육군 군악대가 연주로 행사를 찬조하고 있다

이러한 행주문화제는 산성의 충장사에서 충장공위에 고유를 행함으로써 개막이 되는데 그 고유제는 다음과 같이 집사자가 분방되어 봉행되었다.

초헌 : 최성崔星(고양시장)
아헌 : 김필례金畢禮(고양시의회 의장)
종헌 : 한학수韓鶴洙(고양문화원장)
감제 : 이충구李忠九(제전위원장)
집례 : 정대채鄭大采
대축 : 선호술宣鎬述
상례相禮 : 이현규李顯揆
진설 : 강홍강姜弘岡
봉향 : 이세원李世遠
봉로 : 권정택權貞澤
봉작 : 장시연張始演
전작奠爵 : 선운영宣橒永
내봉작 : 김광주金光柱
외봉작 : 최공崔功
사준司 : 이정례李貞禮
관세 洗 : 김옥란金玉蘭 · 김수옥金壽玉
안내 : 권은숙權銀淑 · 김남숙金南淑 · 송임宋任 · 정영애鄭令愛

고유제관으로 아헌에 시의회 의장 김필례씨를 비롯하여 제전위원과 여성유도히원 등 7인의 여성 집사제관이 분방되어 행공을 한 것이 또한 이례적이었다. 그밖에 이번 행사에는 육군 권율부대의 의장대와 군악대가 나와 여러 공연에 찬조연주를 해 주었다.

<사진 · 글 權炳逸>

13면에서 계속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 우리말에는 원시 부여어夫餘語 또는 예맥어濊貊漁와 원시 한어漢語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대의 우리 민족은 중국대륙 동북지방과 한반도에 그 바탕을 두고 발전한 하나의 민족이다. 따라서 그 언어는 남과 북 두 개의 큰 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삼한三韓의 3국이 형성되기까지 각 족단族團간의 이동이 잦은 과정을 겪어왔기에 동일 줄기의 언어집단이면서 서로간에 적지 않은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언어학자 김수경金壽卿은 삼국시대에 들어 형성된 각국의 언어 관계는 방언에서 오는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근간 중국의 손진기孫進己는 문헌상으로 부여 · 고구려 · 옥저沃沮 · 동예東濊 · 두막루豆莫婁 등은 예맥어를 사용하는 족단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 알타이어 연구로 널리 알려진 핀란드의 람스테트Ramstedt와 미국의 포페Poppe에 따르면 한국어가 속한 알타이 공통어Proto-Altaic가 약 4천년 전까지 대흥안령大興安嶺 산악지대 및 요동 일원에 존속하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말은 이미 알타이어계의 퉁구스어 · 터어키어 · 몽골어와 대등한 독립어로 분리되었고, 특히 이러한 고대 한국어가 요동 일원에서 문화를 이루는 단계에 있던 예맥족 또는 한민족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다 하고 있다. 또 중국의 예일부芮逸夫는 일찍이 발해의 연안인 중국의 동북지방 남부에서 부락을 이루고 있던 민족은 모두 옛 한국인에 속하는 예맥족이며 이곳에서는 고조선이 그 주체가 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은말殷末에 성립되었다는 갑골문자는 서안西安의 반파半坡 유적에 앙소인仰韶人의 것으로 알려진 토기에 새긴 기호를 비롯하여, 동이족 문화권으로 밝혀지고 있는 산동반도山東半島의 대문구大汶口 문화권에 있는 도기陶器문자와 은나라 도기문화권으로 알려진 언사偃師 이리두二里頭의 토기부호 및 정주鄭州 이리강二里岡 유적에서 역시 토기에 새긴 각화刻畵가 나왔는데 이를 은대 문자의 정착으로 보고 있다. 또 요서遼西의 객좌현喀左縣 마창구馬廠溝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는 청동제 술독 뇌 에서 고죽孤竹이라 새긴 갑골문이 나왔는데 이는 주무왕周武王에게 망하기 전의 은왕조 말기에 제작된 청동기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하남河南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은殷(상商)나라는 중국 서북에 해당하는 귀방鬼方(섬서陝西), 토방土方(산서山西)인 황하 상류 지역과 동남방인 인방人方, 이방夷方인 산동山東 지역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것이며, 이같은 고죽국의 문화유적이 전하는 요서지역 일원에는 은주殷周 교체기인 약 3천2백년을 전후한 시대에 비로소 동이족이 이 지방에 진출하였고 또한 그곳 유적에서 갑골문자로 된 고죽孤竹 등의 명銘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은나라 말기에 요서지방 일원에 갑골문 계통의 한자문화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몽골 지역을 비롯하여 요서 · 요동지방 일원에 중원에서 전승되던 장방형 수혈토광묘나, 목곽묘 문화와 다른 석총 문화권이 자리잡고 있었고 중원의 전통문화는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할 것이다.